높을 高 고창

제474호 2021. 9월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www.gochang.go.kr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

고창군민의 30년 숙원이었던 '노을대교'가 마침내 국가계획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리가 놓이면 기본 한나절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다리는 인류의 문명을 창조하고 역사적인 혁명을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네덜란드 건축물의 상징인 에라스뮈스 다리, 프랑스의 웅장한 미요 대교 등 위대한 도시에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다.

고창과 부안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역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CONTETS

2021. 09. 제474호

02 포토에세이

04 인사 말씀

06 고창 사는 기쁨
노을대교
고창갯벌
고창일반산업단지
고창 고수면
투자유치 기업
보리의 도시 고창, 맥주의 도시로 뜬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직업적응훈련시설
고령자 복지주택/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농기계 배달 서비스/농민수당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18 블로그기자단이 가봤다
사임당푸드
고창토굴발효농장 _ 식초체험
고창지역자활센터 _ 고인돌청정두부

24 함께하고 참여하는 고창
치유문화도시 고창

26 추석연휴 가볼만한 곳
대한민국 클라이밍 성지 고창

28 고창이 참 좋다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스퀘어푸드랩
미니밤호박

32 군의회 소식
의장 인사말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군의원들의 한마디

36 우리동네 소식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2021년 9월호 (제474호)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팩스** 063-560-2259
홈페이지 www.gochang.go.kr **발행처**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발행인** 고창군수 **발행일** 2021년 9월 **디자인** 주신기획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한 3/4분기 1종 1회 홍보물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 자료를 고창군청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및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신축년 한가위 즈음

고창군수 인사말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재외군민,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튼실하게 여물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까지 넉넉한 한가위입니다. 올 한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 또한 소외된 군민 없이 골고루 모든 계층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희망의 결실을 하나하나 거두고 있습니다.
30년 고창군민의 숙원이었던 '노을대교'가 마침내 국가계획 반영을 앞두며 사통팔달 고창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또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인을 품었습니다. 이로써 고창은 고인돌, 농악, 판소리, 생물권보전지역까지 유네스코 주요 프로그램을 석권하며 진정한 세계유산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풀밭으로 변해 군민을 애 태웠던 고창일반산업단지에도 고구마 가공 공장, 쌀 가공 공장이 완공되며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복분자농공단지, 흥덕농공단지에도 알짜 식품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며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문학도시 고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고창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본격화됐고, '공영 주차타워 건설', '고창읍성 체험거리 조성', '동호해수욕장 야간경관 사업' 등 역동적인 도시기반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창사랑상품권', '높을고창카드'도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창의 돈이 고창 안에서 돌고 돌면서 동네 미장원 원장님부터 자장면집 사장님, 면사무소 앞 백반집 사모님까지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새롭게 변화하고, 활력 넘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내일을 더욱 기대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는 고창소주, 아락소주, 땅콩 막걸리를 비롯해 고창배와 멜론, 고창한우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로 차례상을 가득 채워서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수 유기상

"고창군민 30년 숙원 해결"

고창 - 부안 잇는 노을대교 건설 확정

기재부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이달 국토부 확정 고시만 남아

고창군 - 부안군, 전북도, 지역 정치권 역량 결집해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

고창과 부안을 잇는 다리가 놓인다. 30여 년 고창군민의 염원과 열망이 드디어 현실화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고창-부안 국도 77호선(노을대교) 건립사업' 관련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 지었다.

예타 통과로 이달 중순께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후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0년 당시 정균환 전 국회의원이 부창대교 가설을 건의한 후, 2005년 기본설계용역까지 완료하고도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후 2012년 대선 공약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킨 것을 30년 만에 다시 재개시켜 결국 사업 추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창군은 2018년 군민들에게 약속한 노을대교를 성사 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기존 부창대교로 부르던 것을 노을대교로 바꿔 경제성이 높지 않던 차량통행 측면에 관광과 물류기능을 더했다. 때맞춰 서남권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군민들도 서명운동을 통해 힘을 보탰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우리 군민의 30여 년 염원으로 숙원사업이자 군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최대 현안사안이 해결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고창이 환황해권 물류·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군민(고창, 부안) 서명부 전달

▲노을대교 조기 착공 촉구 서명운동

왜 노을대교인가요?

고창군 동호 앞바다와 대죽도 방파제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막 달빛에 자리를 내주면서 연출하는 황금 노을이 최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시시각각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바뀌는 하늘, 수시로 선홍빛과 주홍빛으로 물드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서광을 감상하는 최고의 장소에 어울리는 이름인 노을대교로 정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도 기행문 심춘순례에서 조선의 빼어난 풍광 10경 중 하나로 서해 노을을 꼽았습니다.

노을대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노을대교는 고창 서해안권 관광의 랜드마크(상징 조형물)가 될 것 입니다. 62.5㎞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거리가 단, 7㎞로 줄어듭니다. 다리가 놓이면 기존 한나절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5,6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전북연구원 분석)

고창군 해양권 관광개발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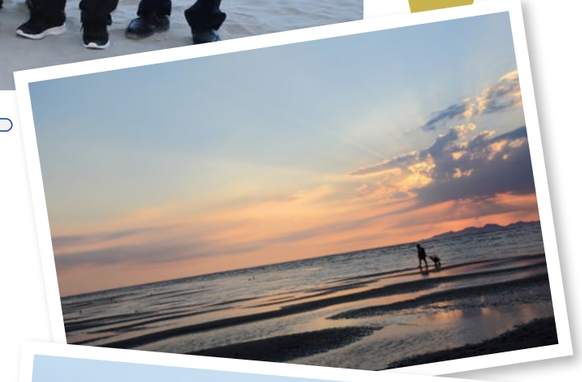
해양치유 관광의 거점을 지원하는 교통로가 됩니다. 국내 생산량 50%를 차지하는 바지락과 지주식 김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동호·구시포해수욕장도 방문객이 밀려들며 숙박이나 음식점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고창군은 내년까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노을대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만큼, 정부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이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2022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개통,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등으로 전북 서남권의 물류와 사람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착공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디자인, 비용절감, 조속추진 등을 위해 설계·시공일체의 일괄수주방식 변경(턴키) 추진을 전북도·정치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 문화·생태 도시로 발돋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쳐가던 여름밤,
전북 고창군의 갯벌이 우여곡절 끝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모처럼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격을 전했다.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속에 사라지는 갯벌을 꿋꿋이 지켜내며
마침내 세계자연유산에 올린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이다.**



바지락 캐고 낙지 잡으며 삶 영위한 소중한 보금자리

고창군 심원면 앞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바닷물이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대바구니를 짊어진 촌로들은 회색빛 갯벌에 통발을 심어 칠게 잡이에 나서고, 아낙들은 밭을 매듯 갯벌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바지락 등 조개를 캔다. 갈매기 떼는 갯벌에 숨은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부리를 움직인다.

모래·펄·혼합갯벌 한 곳에..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질·생태자원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사 암반 해안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 갯벌로 ▲해리면 모래갯벌 ▲심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펄 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희귀하다. 특히 폭풍 모래 퇴적 체인 쉐니어(Chenier, 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가 형성된 지형·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새 기착지 등 생물 다양성 보전 서식지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고창군은 갯벌을 지켜내기 위해 수년간 행정과 민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갯벌축제 등을 열고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식물원 조성 ▲어촌 6차 산업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10월 고창을 찾았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실사단은 아동생태지질체험 학습(지오드림) 등을 포함한 갯벌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관심을 보이며 이번 자연유산 등재 전망을 밝혔다.

고창군 폐 염전부지에 노을과 함께하는 생태테마관광지구 조성

고창군은 고창갯벌과 최인접 지역인 심원면 염전부지 216만 2,925㎡(65만 평) 규모를 매입해 '노을과 함께하는 생태테마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식생이 복원된 광활한 폐 염전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 해당 부지의 활용과 고창갯벌과의 연계 추진 등 고창군을 넘어 서해안권의 중요한 생태관광 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

여기에 2025년까지 '갯벌세계유산센터'를 짓고, 2단계로 염생식물원, 자연 생태원, 소금 관련 6차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 갯벌 보존과 현장 교육이 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대한민국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날아오른다!

고창군 대표 먹거리 ‘고품질 쌀 가공시설’, ‘고구마 가공공장’ 완공

그간 풀밭으로 변해 군민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고창일반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비상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고구마 가공공장과 고품질 쌀 가공시설이 완공돼 하반기 본격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고수산단(고구마공장)

고구마 가공공장은 총사업비 8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고구마 가공시설(2,515㎡)과 홍보실, 사무실을 갖췄다. 군은 고구마 가공시설 건립으로 지역 고구마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비선호 품을 수매 가공해 연 7억 5,000만 원의 추가 소득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관내 500여 호의 소규모 고구마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고수산단(쌀공장)

고품질 쌀 가공시설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가공시설(2,165㎡)과 건조·저장시설(1,310㎡) 지었다.
현재 고창군 대표 브랜드 ‘높을고창 쌀’은 친환경으로 재배된 수광(품종) 벼를 최고의 품질로 가공하여 10㎏당 5만 원의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

한결영농조합법인 RPC 박종대 대표는 “높을고창쌀이 대도시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하고 전용품종, 고품질 기준 적용 출하 등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고창 고수면

머물고 싶은 생활 일체 농촌 공간

국비 50억원 지원받아 주거 - 생활 - 일자리 개선

고창군 고수면 소재지인 황산리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사업은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150호 조성)과 해오름 생활 중심 마을(상하수도 정비, 진입로 개설) 등 주거공간 사업과 고수드림센터(복지회관 리모델링, 작은도서관·미디어교육공간), 고수문화리빙센터(일자리 카페, 문화교류 공간 등) 등이 진행된다. 초등학교와 주거지역 주요 보행로에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생활 중심 마을 주요 도로가 정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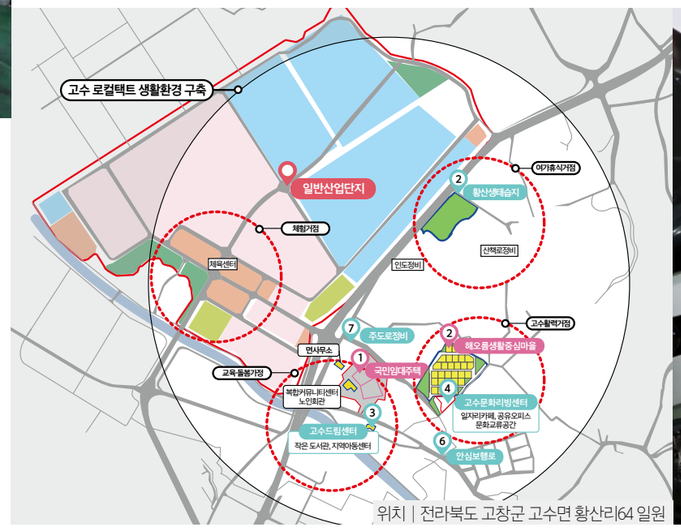
특히 황산생태습지공원사업도 포함돼 습지 복원과 주변에 관찰데크 설치 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햇살 좋은 빨래터’ 문 열어...

취약계층 세탁 서비스 지원

고창군 고수면 행정복지센터에 ‘햇살 좋은 빨래터’가 만들어졌다. ‘햇살 좋은 빨래터’는 거동불편으로 빨래가 어려운 주민들의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세탁·건조 후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고수면과 흥덕면이 시범사업으로 각각 추진한다.

세탁물 수거와 배달은 고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봉사로 이뤄지며, 가정을 방문할 때 잠시나마 말벗 동무가 되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주 2회 빨래터를 운영하며, 44세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연중 서비스 이용객을 모집해 빨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2021년도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 맞춤지원)

고창 복분자·흥덕농공단지 투자유치 기업 5개소

(주)태송[엄지식품 자회사]

태송은 엄지식품의 자회사로 볶음밥, 영양밥, 만두, 나물밥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식품 전문 기업이다. 340억 원을 투자해 270명을 채용하고, 곡물가공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주)온쿡농업회사법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자회사]

온쿡은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자회사로 250억 원(부지 9,586.7㎡, 고용예정 50명)을 투자해 볶음밥, 핫도그, 갈비탕 등 가정간편식을 생산한다.

(주)엄지식품

엄지식품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손만두 산업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창업 후 30년간 만두를 비롯해 다양한 냉동조리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복분자 농공단지 2만 628㎡에 2023년 8월까지 5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볶음밥 제조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16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주)다좋은

복분자 농공단지에 입주한 농업회사법인 이앤지푸드의 자회사로 6,420㎡ 부지에 88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에서 52명을 채용해 컵밥,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슬람 문화권의 할랄 식품 등 가정간편식을 생산하게 된다.

세븐브로이선운(주)

강원도 횡성,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국내 1호 수제 맥주 업체 세븐브로이 맥주 자회사다. 청와대 호프미팅 때 공식 만찬주로 사용되고, 최근엔 곰표맥주와 지역명을 딴 맥주 시리즈(강서·달서·전라·서초 맥주 등)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흥덕농공단지에 209억 원을 투자하고, 20명의 인력을 채용해 수제 맥주를 제조·판매할 계획이다.

'보리'의 도시 고창! 맥주의 도시로 뜬다

세븐브로이선운, 고창에서 곰표맥주 출시 준비 한창
파머스맥주, 복분자 농공단지에서 고품질 국산 보리와 쌀로 맥주 제조

"맥주 맛이 뭐 거기서 거기지"라고 말한다면 수제 맥주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수제 맥주는 맥주의 원재료인 보리(맥아)·홉·효모와 과일·초콜릿 등 부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합해 만드는 맥주다. 맛도 향도 천차만별이다. 보리의 도시 고창군이 대한민국 수제 맥주의 성지로 뜨고 있다.

'곰표맥주'로 더 잘 알려진 세븐브로이의 자회사인 세븐브로이선운이 연말 흥덕농공단지에 1만 2,000㎘ 생산량을 갖춘 고창 신공장을 가동한다. 고창 신공장은 준공 후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 1만 5,000㎘를 증설해 총 2만 7,000㎘의 생산설비를 갖춰 곰표맥주는 물론 다양한 수제 맥주를 생산할 계획이다.

세븐브로이선운(주) 김강삼 대표이사는 "고향(고창군 부안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곰표맥주나 지역명을 딴 맥주처럼 고창 맥주를 개발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함께 상생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복분자 농공단지에 이미 자리 잡은 파머스맥주는 2016년 국내 최초 쌀맥주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파머스맥주'에서 생산되는 맥주는 국산 쌀가루 20%와 보리 맥아 80%를 혼합해 만들었다. 고창에서 재배되는 보리로 맥주의 기본 맥아를 사용한다.

파머스맥주 이용선 대표는 "대한민국 보리의 고향인 고창에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속에 맥주를 만들다 보니 최상의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홍삼·복분자 등 다양한 맥주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사업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직업적응훈련시설 개원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양육부담 덜고, 직업 능력 강화로 자립지원"

고창군에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직업적응훈련시설이 개원했다. 이는 유기상 고창 군수의 역점 공약사업으로 군청 아띠다방에 이은 또 하나의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 사회복지시설 지구(고창읍 전봉준로 108-4)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고창지역에는 처음으로 생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맞벌이 또는 기타 사정으로 가정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바로 옆에 자리한 고창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재활 프로그램 등 훈련 중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 지도 강사들은 바리스타 교육을 비롯해, 전선 가공 작업, 종이가방 조립 등 중증 장애인들이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간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숙련도를 높여 장애인들의 재활과 취업을 돕는다.

고창군청 조정호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고창을 위한 장애인 기본 인프라가 모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보호시설 TEL.063-923-9920
직업적응시설 TEL.063-923-9910

고령화 시대 신개념 주거시스템

고창군 고령자 복지주택, 내년 말 준공 예정

고창군에도 노인의, 노인에게, 노인을 위한 아파트가 지어진다. 노인 맞춤형 복지시설부터 흥미 유발 프로그램, 함께하는 식사까지 모든 게 준비된 고령자 복지주택.

고창군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난 8월 첫 삽을 떴다. 내년 연말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개념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비 126억을 지원받아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지구에 128호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 문턱 제거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저층부에는 여가활동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특히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해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축설계와 시공,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고창군은 사업 부지 제공과 도로개설, 상·하수도관 설치 등 기반 조성을 담당하고 사업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유기상 고창 군수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주거와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고민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라며 "백세시대 누구나 편하게 머물고 싶은 고창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 장터 이름)를 찾아 보세요"

"플레이 뭐?"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지역 경로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2개월간(9~10월) 지역 30개소 경로당에서 열린다. 과기부에서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자원봉사로 참여한다.

기초적인 문자 전송부터 카톡 사용, QR코드 사용, 사진 편집 등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한 어르신은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했던 분야를 무료로 알려주니 정말 고맙다"라며 "가족,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 돼 즐겁다"라고 활짝 웃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경제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르신 배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농기계 배달 서비스 '히트'

"어디든 15분안에 갖다줍니다"

북부권 농기계사업소 11월 개소 예정.. "동서남북 15분 이내 농기계 배달 시스템 구축"

고창군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지역 농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올 11월에는 북부권(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까지 임대 사업소가 만들어지면 고창군 동서남북 어디서든 단 15분 이내 농기계 배달이 가능해진다.

군은 1톤 특수차량을 3대 확보해 농민들이 3일 전 농기계를 예약하면 전문 운송차량을 이용해 영농현장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 운송 가능한 농기계는 트랙터부터 관리기까지 전 기종이다.

앞서 고창군은 농촌 고령화·규모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농민들이 직접 사업소까지 와 묵직한 기계를 경운기나 1톤 트럭 등에 옮겨 실으면서 끼임·절단 사고 등이 많았었다. 배달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그간 원거리 이동으로 농업인은 사고 위험 노출을 줄이고 영농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고,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까지 실시 후 다음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센스만점'의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기계 임대서비스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고창이 시작한 전북 농어민 공익 수당 60만 원 추석 전 지급

고창군과 전북도가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 수당' 60만 원이 추석 전 각 농가에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 수당은 농어업인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예산을 마련해 농어업 가구당 연 60만 원을 각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고창군이 도내 첫 도입 이후 지난해 전북도 14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양봉 농가와 어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도서관"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본격추진

도시와 공간에 대한 참신한 해석으로 주목받는 유현준 건축가 설계
"가변형 서가 구조, 주민 공간 활용도 극대화"

'책 읽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 도시'를 목표로 한 민선 7기 고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 도서관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은 고창읍 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 지구 내 4,078㎡의 부지에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올 연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128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 도서관의 설계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참신한 해석으로 주목받은 유현준 건축가가 맡았다.

큰 나무숲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한옥의 목구조와 공간을 재해석해 다양하고 풍요로운 공간 구성을 제안했다.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에 생활문화 센터 기능을 더했다. 특히 이동 가능한 가변형 서가구조를 도입해 고정돼 있는 공간이 아닌 '변화하는 도서관'을 제시했다. 인문학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는 강의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창군청 도서관팀 김성숙 팀장은 "선운사, 고인돌, 고창읍성, 상하농원, 고창 청보리밭과 더불어 고창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내부투시도 ▲외부투시도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프리미엄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 高 고창 제품소개

수박

고창수박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비옥한 토양에서 높은 일조량과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문 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한 프리미엄 수박(8kg 이상, 12브릭스 이상)만이 '높을고창' 브랜드를 달고 소비자들과 만난다.

멜론

세계최초로 시도된 멜론 온라인 경매에서 2년 연속 210만 원의 경이적인 낙찰가로 하나의 문화가 된 고창 멜론.

높을고창 멜론은 모양이 둥글고 그물 모양의 굵기·간격이 일정하게 잘 발달된 제품만 엄선돼 소비자에게 극강의 과즙과 건강한 단맛을 선사한다.

친환경쌀

'한식의 시작과 끝', '식은 밥도 맛있는 쌀', '퇴근을 앞당기는 쌀' 등의 후기로 전국 밥맛을 평정했다.

밥쌀용 최고 품질인 '수광벼' 품종으로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대표 박종대)에서 생산한다. 단백질 함량 6% 이하의 우수한 품질기준과 전용 저온 창고 보관, 출하 직전 1주일 이내 도정된 것만을 유통한다.

건고추

고창고추는 서해안 일대에서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갯벌 바다 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껍다.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하는 최고의 고추다. 높을고창 건고추는 출하 등급 특품,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길이 13㎝~18㎝, 중결점과가 없는 품질기준을 적용한 제품이다. 백화점에서 3kg 14만 8,800원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높을고창 고춧가루(300g, 500g) 또한 출시할 예정이다.

땅, 바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야기가 있는 높을고창몰

고창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몰' 인기몰이
https://noblegochang.com/

사임당푸드

"올 추석엔 고창 농산물로 만든 고소하고 달콤한 한과 맛보세요"

조해주 대표 "오롯이 한국의 전통 맛과 멋을 계승하며 성장 하는 식품기업"

고창군에는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原)'의 이념을 가진 기업이 있다. 2004년에 설립된 사임당푸드이다. 사임당푸드는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로, HACCP 인증과 CLEAN 사업장 인정을 받아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한과와 떡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과 맛과 멋이 살아있는 '사임당푸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추석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고유의 전통 먹거리다. 특히 전통한과는 빼놓을 수 없다. 발효된 찹쌀을 손수 시루에 쪄내고 말려 튀겨내고서 조청을 바르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한과라면 현대의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 3일 찾은 사임당푸드.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찹쌀 덩어리가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여기에 조청을 바르고 하얀 쌀가루를 입힌다. 완성된 유과가 쉴 새 없이 기계에서 뽑혀 나온다. 명절 선물의 대표 격인 한과 제조 공장이 은은한 향으로 가득 찼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하고 찐득하고 달콤하고 사르르 녹는 맛에 마음까지 설렌다.

공장 한쪽에서는 유과를 기름에 튀기고, 다른 쪽은 쌀 고명을 묻힌 뒤 포장지에 담는 손길이 분주했다. 올 추석 명절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했다. 기계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지만 중요한 공정은 사람 손으로 해야 한다.

사임당푸드의 대표 제품인 망개떡은 향긋한 향과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망개잎으로 싸여 있고, 너무 달지 않은 팥앙금과 한 입 크기 사이즈로, 쫀득한 식감이 좋아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또 우리 과자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위해 출시한 복분자 한과는 국산 찹쌀과 쌀, 복분자를 사용해 만들었다.

사임당푸드는 HACCP 인증, ISO22000, CLEAN 사업장,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으로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홈쇼핑, 면세점, 대형마트 등 다수의 판매처를 통해 납품과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끊임없는 제품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계승, 발전시키며,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적극적인 소비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조해주 대표는 "고창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의 힘으로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 고객님께는 안심을, 농민들께는 보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임당푸드(대표 조해주)
TEL 063-561-5986
홈페이지 http://www.saimdangfood.kr/

고창토굴발효농장

시골 외갓집에 온 것 같은 분위기 '고창토굴발효농장'에서 다양한 체험 즐기기!

고창하면 복분자가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고창은 그 이름도 유명한 식초 문화도시입니다.
황토 농산물과 게르마늄 온천수. 청정한 환경과 최적의 발효 환경!
오늘은 고창에서 전북 발효식품 체험장으로 지정되고,
생활 발효 학교 운영, 귀농 귀촌 희망자를 위한
발효식품 창업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고창토굴발효농장'을 찾았습니다.

체험 설명

2007년 귀농 이후 고창 황토로 토굴 숙성실을 준공해 전통장류와 자연발효식초를 저염과 환경공해로부터 안전하고 발효 공법으로 연구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농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체험장으로 이동해 복분자 코디얼 만들기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복분자 코디얼은 농축 과일주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에 알맞은 양을 넣고 섞어 드시면 되는 식초음료이기도 합니다. 복분자와 설탕을 넣고 믹스한 다음 끓이는 과정부터 시작해 봅니다. 체험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아 설명과 지시에 따라 맛있는 체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토굴 발효에서 만든 발사믹 식초를 넣어 만들어 주신 샐러드가 상큼하니 제 입맛에 제격이더라고요. 감자도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어보니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생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어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창토굴발효농장 체험

토굴 발효에서 발효 밥상 체험도 진행합니다. 전통장류로 밑반찬과 된장국, 청국장 등 한 상 차림을 제공하면서 농가 숙박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푸짐하고 건강한 농촌 밥상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겠죠? 최소 1주일 전에는 홈페이지 (www.kochang.co.kr) 또는 전화 (063-562-6800) 로 예약하면 됩니다.

글·사진 김선향 고창군블로그 기자

고창토굴발효농장(대표 김상관)
위치 고창군 상하면 선운대로 734-12
전화 063-562-6800 , www.kochang.co.kr

고창지역자활센터

고인돌청정두부사업단

바삭바삭 건강한 간식「고창콩 두부과자」

안녕하세요! 고창지역자활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교육과 훈련, 상담과 정보 제공, 창업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하는 사회 복지시설입니다. 특히 자활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자활센터 직원들이 직접 고창에 관련된 아이템으로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주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립능력 향상과 자활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청정두부사업단의 두부과자가 특히 인기 제품이라 들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생산하던 두부만 가지고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들을 넘어설 만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두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부과자입니다. 판매의 다각화를 이뤄주는 두부과자는 100% 고창콩과 천연 간수를 사용한 두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HACCP 인증을 받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정해진 수량만큼 튀긴 후 교체되는 식용유를 사용하며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만큼 정성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수제품이기에 모양의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일반 시제품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며 깨끗한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과자의 특성상 맛과 모양이 조금 심심한 경향이 있어 반죽 안에 고창 농산물인 새싹보리와 비트를 넣어 색을 입혔기에 맛도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품의 다양성을 올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창콩 두부과자를 즐기는 끝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낵류이기에 다양한 음료와도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와도 잘 어울리고 시리얼처럼 우유나 요플레에 같이 먹어도 기분 좋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또 아이스크림의 토핑에도 훌륭한 재료가 되며 두유와 커피를 넣고 갈아서 만든 라떼는 많은 사람이 찾는 별미로 손꼽힙니다.

앞으로 고창지역자활센터 고인돌청정두부사업단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에게 사업 관련 교육, 경영마인드 교육, 마케팅 교육 인성·소양 교육 등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저소득층의 부족한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자립심을 길러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인 창업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은 공간에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큰 작업장도 마련하고 HACCP 재인증을 통해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직 부족한 쇼핑몰을 더 확대하여 고창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두부과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구운 두부과자, 두부 도넛, 두부 버거 등 남녀노소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신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고창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마음처럼 고창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은 고창의 지역 발전과 삶의 안녕을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고창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믿고 구매하셔도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지역자활센터
위치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19, 고창군민복지회관 2층
전화 063-562-2014

치유문화도시 고창

사람과 자연 문화예술로 위로 받는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주도 '문화살롱' '허브농장이 콘서트장으로'

고창군 아산면 허브전문농장 보니타정원(대표 정진강)이 하우스 콘서트장으로 변신했다. 고창으로 귀촌해 농가민박을 운영하며 문화기획자로 활동 중인 강영수(고창 아산면) 대표가 연주자를 초청하고, 프리마켓을 구성해 허브를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토크쇼 진행 등 사업 전반을 기획해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빈티지 소품, 그림공예, 다육 화초, 허브 제품을 선보이고 블루베리, 말린 표고버섯, 치즈, 벌꿀 등 직접 농사지은 농특산품까지 플리마켓을 통해 전시·홍보하며 고창을 알렸다.

"마을 칼 갈아드립니다"

고창군 신림면 '책이 있는 풍경'에서 진행된 '시민문화살롱'에선 '우리 함께 문화로 잘 놀아요'를 주제로 전통놀이와 생활 도구를 활용한 이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지역민들의 녹슬고 무딘 칼날과 낫날 등 날을 세워주는 '칼을 세워요'가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성복 백합 봉사단장과 단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가구 125개의 칼, 가위, 낫 등을 갈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고창읍성 맨발로 한바퀴

'일상 속 치유'를 주제로 고창읍성 내 관청과 맹종죽림, 동헌을 맨발로 걷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열렸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고창군청걷기동호회 '첫 수도 한바퀴'가 주관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생활 속 위로와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라마 주몽, 추노, 무신 등에서 연기파 배우로 활약한 윤동환, 매년 산티아고 순례길 1,500㎞를 맨발로 걷는 '달형제'도 참가해 군민 20여 명과 함께 요가, 명상, 맨발 걷기를 진행하고 대화의 시간을 보냈다.

2012년 서채현 선수(당시 나이 11세)
선운산 투구바위를 오르고 있다.

2013년 서채현 선수(당시 나이 11세)
선운산 투구바위를 오르고 있다.

고창 할매바위 암벽오르기

대한민국 클라이밍 성지 고창, 천연암벽에 수준급 인공암벽장까지 갖춘다

스포츠 클라이밍 천재소녀 서채현 선수의 비밀훈련장은 고창 투구바위

"오르고 또 올라 파리올림픽 시상대 젤 높을 곳에 오를 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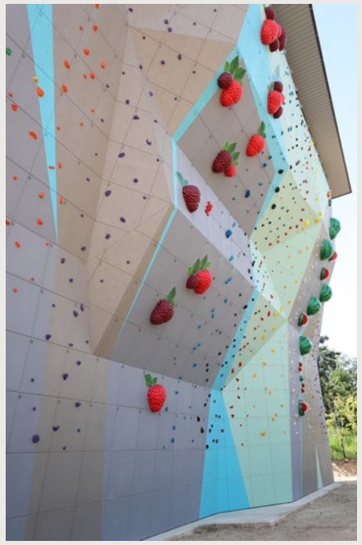
고창 할매바위

최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 스포츠클라이밍 부 문에 출전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서채현 선수.
스포츠 클라이밍 천재로 불리는 18살 '거미 소녀'를 키워낸 비밀 훈련장이 전북 고창에 있다. 서 선수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일곱 살 때부터 실내 암벽장을 운영중인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전국의 명산을 두루 다녔다.
선운산 투구바위도 여러 차례 찾아 수많은 도전과 실패 끝에 마침내 최고난도 루트를 개척해 올라섰다. 서 선수는 "저는 자연 바위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신체 조건이나 세팅된 난이도에 상관없이 자기가 찾아서 가는 거니까요"라며 "완등했을 때 짜릿한 느낌이 아무래도 자연 바위 쪽이 더 좋아요"라며 웃었다.

클라이밍을 좀 한다하는 사람들에게 고창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장소다. 특히 선운산 투구바위는 골짜기 양쪽을 바위벽이 바라보며 늘어서 있는 독특한 생김새다. 골짜기 위에서 보면 바위 사이의 공간이 로마 검투사의 투구처럼 생겼다. 그 앞에 사람이 서면 골바람이 불어와 서늘한 혓바닥으로 온몸을 휘감는다.
투구바위는 벽 길이가 10~15m의 자연스런 오버행(수직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바위의 한 부분)이라 고난이도 프리등반의 대명사로 꼽힌다.
고창군 클라이밍 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최고 난이도인 5.14급 루트 5개가 모두 투구바위에 있는 것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고난이도 프리등반지인지 알 수 있다. 초고수를 위한 최고의 벽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높이 60m, 폭 50m에 달하는 아산면 계산리 할매바위 역시 대표적인 암벽등반의 명소다. 수직벽과 오버행을 이루면서도 큼직큼직한 홀드(돌멩이 등 잡을 수 있는 부분)와 잘 발달된 포켓 홀드(홈이 있는 부분) 등이 있어 클라이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등반거리도 짧은 편으로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난이도 역시 초·중급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다양해 자기 수준에 맞는 루트를 등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에 화장실과 대기실 등 휴게시설이 설치돼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찔 짜릿! 복분자와 수박이 맞아주는 고창인공암벽장 개장 임박!

경사면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다이내믹한 움직임, 온몸을 이용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 실내 운동은 재미가 없다는 편견을 부숴주는 클라이밍. 일단 한 번 도전해보시라.

내년 초 고창읍 새마을공원 한편에 멋지게 자리한 고창군 실내 암벽장이 정식 개장한다. 현재 본 건물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주변 정리와 세부 운영방안을 조율이다. 고창 인공암벽장은 폭 32m의 국내 최장 리드벽 등을 갖췄다.

주민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자연, 고창에서 실현됩니다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고창운곡습지생태관람관광협의회는 고창 운곡습지 주변에 있는 6개의 생태관광 마을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곳이다.
운곡습지는 2011년 4월 6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람사르'는 이란에 있는 도시 이름에 습지로서의 보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통한다.
협의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습지 자원 보호이다.
주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환경을 보존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운곡습지 주민 실천의 날'은 마을 주민들이 습지 보호를 위해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쓰레기도 줍고, 습지로 가는 길 주변을 정화하여 습지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 영애를 안기도 했다.

또한, '운곡람사르습지 내의 논둑 복원작업'은 2017년부터 전통 방식으로 논둑 복원작업을 시작했는데 2019년도에 반딧불이를 발견하였고 작년에는 대량의 애반딧불이가 발견되어 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2018년도부터 진행된 오베이골 토요 장터는 운곡습지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고인돌 공원 입구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플리마켓이다. 일반 농산물부터 커피, 수공예품, 도자기, 대바구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협의회에서는 운곡습지를 예약하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도 한다. 교육청과 같이 MOU를 맺어서 방과 후 습지마을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영선중학교와 자유중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곡을 그려봐'라는 웹툰을 만들고 있다.

올해 7월 14일까지 자연생태교육을 위해 11개 학교에서 35회씩 총 1,2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녀갔는데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강사들을 충원하고자 2017년도부터 자연 생태 안내인 교육을 하여 현재 10여 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금년 협의회의 성과 중 하나는 국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관광 도시·지역을 뽑는 '그린 데스티네이션 100'에 선정된 것이다. 더불어 각 나라에서 세 군데씩 뽑아서 보내는 세계관광공사의 '베스트 빌리지 선정'에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마을이 세 군데 중 한곳으로 뽑혀 10월에 있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협의회는 중요한 전환점을 맡고 있다.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정도의 사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며 현재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 발기인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고창군의 허파이다. 고창군 자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생물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 고창 갯벌람사르습지, 고창 운곡람사르습지이다. 조용호 협회장은 "내가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이렇게 보존가치가 높고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습지가 있다는 것을 고창 군민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기억하고 같이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한다.

고창 농산물 활용해 몸에 좋은 건강한 빵 만들어요!

스퀘어푸드랩

스퀘어푸드랩은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이다. 고창 복분자를 사용한 치즈 케이크가 시그니처 제품으로 기존 치즈 케이크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채식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대체 설탕을 첨가했기 때문에 당도가 낮고 밀가루 대신 고창 오색 보릿가루와 통밀가루를. 버터 대신 현미유나 코코넛 오일 등을 활용한 건강한 디저트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다.

스퀘어푸드랩의 가장 중요한 콘셉트는 지역 상생이다. 고창은 복분자가 유명하지만, 복분자를 활용한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때문에 다양화를 위해 고창 복분자를 디저트에 접목시켜 복분자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구매자의 연령층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분자를 대신하여 '블랙 라즈베리'라는 네이밍을 사용하고 있다.

박혜인 대표는 고창의 특화된 농산품인 복분자와 다른 농산물들을 활용하여 지역 친화적이고 몸에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디저트로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동물성 버터, 보존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유당불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스퀘어 베이커리에서는 모든 제품에 정제설탕 대신 프락토올리고당, 비정제원당, 에리스리톨(0kcal 대체당) 등으로 단맛을 대체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린 편이어서 주변 또래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기 힘든 점도 있었지만, 고객들이 제품을 드시고 후기를 올렸을 때 가장 보람 있다." 라고 말하는 박 대표는 "얼마 전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였기에 제품도 소개하고 시식회도 하였다. 군수님의 이런 응원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박혜인 대표는 "항상 설레임이 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것.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디저트를 개발하는 것이 경영 철학이에요"라고 말한다. 스퀘어푸드랩이 지역 상생을 위한 일종의 판로 역할을 해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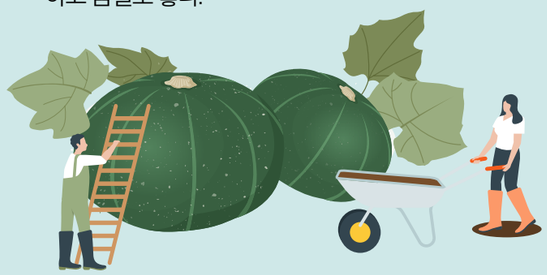
스퀘어푸드랩(대표 박혜인)
위치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57-15, 108-101
전화 010-5040-7040

미니밤호박 박광득씨

'미니밤호박' 노지재배 성공하며 인생2막 열어

박광득씨 "호박농사 지으니까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죠"

고창군 성내면의 호박밭. 녹 빛 껍질로 덮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탐스럽게 열린 열매는 다름 아닌 미니밤호박. 노지재배에 성공한 고창 미니밤호박은 공중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흙이 닿지 않아 깨끗하고 품질도 좋다.



귀농 2년차 박광득(62) 씨는 2019년 3월 아내와 함께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했다. 9개월간 체류형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군에서 주관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고창의 생활환경, 농업 여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목은 사위와 딸이 농사짓고 있는 미니밤호박(보우짱)을 선택했다. 미니단호박은 품종 개량종으로, 밤처럼 포슬포슬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껍질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 씨는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단호박을 재배해 당도, 색깔 등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호박 농사의 단점으론 수확기 전국적인 집중 출하로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박씨는 농산물 가공으로 눈을 돌렸다. 성내에 가공시설을 마련해 '구운 아이스 미니밤호박', '밤호박가루', '단콩라떼(단호박+콩)', '콩물가루'도 판매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광득씨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아내, 자녀와 함께 농사일을 하고, 가공 판매하면서 잃었던 건강도 찾고 삶에 활력을 느낀다"고 활짝 웃었다. 이어 "귀농 준비는 차분히 오래 할수록 좋은 것 같다. 앞으로 고창을 택하는 귀농인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며 후배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인규 의장 인사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고창군 의회는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군민의 생활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전반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시는 따뜻한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고창군 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고창군의회 의장 최 인 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군민에게 힘이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고창군 의회는 항상 군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군민이 필요로 할 때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군민께 드리는 명절인사

최인규 의장
(심원, 흥덕, 성내, 부안)

만날 수 없어 아쉬운 추석 명절이지만,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되찾는 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평안한 휴식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고창, 신림)

사회적 대혼란의 코로나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힘이 되지 못하여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금년 추석은 친지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뜻있는 명절 되시옵고, 군민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성원에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
(고창, 신림)

산·들·바다 사람이 살기 좋은 내고장 고창에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감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추석 대명절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희망찬 고창건설에 군민여러분과 발맞추어 전진하겠습니다.

임정호 부의장
(고수, 공음, 성송, 대산)

코로나로 함께할 수 없는 가족, 친지 얼굴 환한 보름달에 그려보시며, 멀리서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에 군민 한분 한분 새겨가며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김영호 운영위원장
(고수, 공음, 성송, 대산)

반가운 추석 한가위가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행복과 넉넉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아산, 무장, 해리, 상하)

알알이 곡식이 여물어가는 풍성한 가을, 몸은 거리를 두지만 마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경신 의원
(고창, 신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명절이지만, 보름달처럼 둥글고 풍요로운 명절 되시길 바라며 남은 한해 더욱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자치행정위원장
(비례대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한가득 보름달처럼 행복과 건강 모두 꽉 찬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남준 산업건설위원장
(아산, 무장, 해리, 상하)

결실의 계절 가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 사이에 거리를 두지만, 마음만은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알차게 추석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봉희 의원
(심원, 흥덕, 성내, 부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몸은 멀어도 마음은 항상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며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봅니다.
화목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소식

GOCHANG

고창읍 지사협

어려운 이웃에 삼계탕 나눔 봉사

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고운기, 손영찬)가 어려운 이웃 400여 명에 뜨끈한 삼계탕을 가정마다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행사는 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한국부인회 고창군 지회(회장 조명희) 회원 등이 봉사에 참여했다.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동급식차량과 전문 인력을 지원했다.

고수면 지사협

지역 어르신 일상 남기기

고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용철, 서학용)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귀감이 되시는 인물이나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인사를 찾아 일상을 사진으로 남겨 면사무소 로비에 전시할 계획이다.

아산면 지사협

저소득층 반찬드림

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관, 나종창)가 지난 26일 아산마을복지 중점추진사업으로 60세대에 맛깔난 반찬을 전달했다. 올해 반찬 드림사업은 연말까지 총 420세대에 지원된다. 아산 울력 기부 나눔 1인 1나눔계좌 후원금을 활용해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있는 홀로 어르신 위주의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된다.

공음면 지사협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안전꾸러미 지원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수동, 최경연)가 지난 9일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 꾸러미를 50세대에 지원했다. 꾸러미는 마스크, 설탕, 샴푸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15가지 품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상하면 지사협

취약계층 소독지원 서비스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영술, 박종록)가 관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소독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소독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퀴벌레, 쥐, 해충 등을 퇴치해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해리면 지사협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전달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문인규, 이한성)가 홀로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 나기를 위한 물품 꾸러미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위원들은 혹서기 무더위 극복 및 해충퇴치를 위한 홈키파, 물파스, 쿨토시, 파스 등 4가지 물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100세대에 전달했다.

무장면 지사협

취약계층 여름철 물김치 나눔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미숙, 김기육)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사랑의 물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여름철 물김치 나눔 행사'는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해 물김치를 4㎏씩 개별 포장해 50가구에 전달했다.

대산면 지사협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 개최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영윤, 강부덕)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반찬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복한 반찬마실'은 섞박지, 연근조림, 제육볶음 등 정성을 담은 반찬을 만들어 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지원 대상자들에게 반찬을 배달했다.

흥덕면 지사협

관내 경로당 방역소독봉사 고창군자원봉사센터와 이동세탁 봉사

흥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영록, 고정호)가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51개 경로당을 포함,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취약세대를 방문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흥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체 소유의 소독 기계를 활용해 방역·소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성송면 지사협

고창군자원봉사센터와 이동세탁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진현, 강호식)가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성송면 괴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세탁 봉사를 열었다. 이날 지사협 위원들과 센터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세탁 시설이 부족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폭염 속에서도 30여 채의 이불을 빨며 이웃사랑을 이어나갔다.

심원면 지사협

태양광 보안등 100대 달아

심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라남근, 현병채)가 야간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태양광 보안등 100대 설치를 완료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마을 안길과 홀로 계신 어르신 집 앞에 보안등을 설치해 어둠을 밝혔다.

신림면 지사협

폭염대비 저소득층 선풍기 지원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정수, 홍성대)가 관내 독거어르신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 52세대에 폭염대비 선풍기를 지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가구별 가정방문을 통해 선풍기를 전달하며 안부 확인과 함께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안내했다.

성내면 지사협

희망 집수리 사업 자원봉사

성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정묵, 최인주)가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의 주택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2가구에 집수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성내면 내안마을 독거 어르신 주택 출입로를 고쳐 출입이 편하도록 도왔고, 교동마을에 사는 독거어르신 주택의 오래되고 낡은 싱크대를 교체했다.

부안면 지사협

고창군자원봉사센터와 이동세탁 봉사

부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수경, 이상수)가 고창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부안면 상굴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세탁 봉사를 진행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겨우내 내 사용하던 두껍고 무거운 이불을 이날 이동세탁 차량으로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게 빨아 널어 큰 호응을 얻었다.

높을 高 고창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농특산물 추석명절
꾸러미 선물세트

"고창 농가의 정성을
듬뿍 담아 드립니다"

한반도 세트

3만원 한반도

서리태
고창청보리잡곡 500g

발사믹소금
진농식품 100g

볶음알땅콩
대성농협 500g

첫수도 세트

5만원 첫수도

된장
두레(영) 300g

고추장
두레(영) 300g

발사믹식초
자연숨결그대로 100ml

벌꿀
호야농장 300ml

새싹보리
다농식품 150g

문의처 |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수출마케팅 T.063-560-2701
주문처 | (주)고창황토배기유통(고창읍 녹두로 1265) T.063-564-2009
예금주 | (주)고창황토배기유통 / 농협 301-0150-7794-81 ※택배비 회사 부담